

2005년  
4월 1일  
제213호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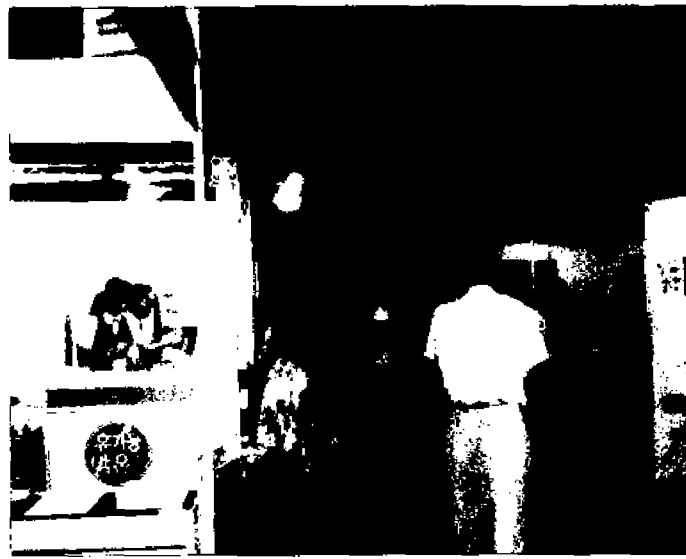
# 健康과自然農業



사단법인 유기농협회 발행인 정진영 편집인 정진영 http://www.organic.or.kr 동행문라인 016-01-168315 유기농협회 광고 및 구독신청 02-406-4462  
우편번호 166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2 11월 1일 4호 전화 (02)406-4462 FAX (02)403-446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기준을 준수한다

## 『제3회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2005』

가공품 생산노하우·정보 얻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독려하길



▲ 지난해 12월에 개최했던 제2회 친환경·유기농산물 전람회 시 각 부스별로 실시된 홍보·시식·판매행사에 참여중인 소비자들의 열띤 모습.

본협회의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생산된 인증농산물중 절반정도는 그런대로 상품화가 잘 되지만 나머지는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상당량을 폐기처분하거나 일반농산물로 판매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경영면에서의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친환경유기농업의 지속적인 실천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바로 친환경유기농산물의 가공산업을 육성·육성하여 건조·분말화·발효식품·음료화·스네류·간식기호식품·생식·허브제품 등의 다양한 가공품 생산을 촉진하는 길밖에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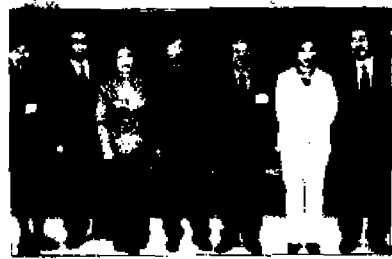
음을 누차 강조하여 오던차에 외국 유기농식품 생산 기술과 정보의 폭넓은 교류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본협회가 주최하여 개최해 오고 있는 『친환경·유기농 박람회』가 제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친환경·유기농 박람회』를 통하여 국내 산진기업체들의 유기농기술과 정보의 확대보급은 물론 해외의 우수한 유기농업체들중 우리나라의 생산품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는 유기커퍼나 유기목화제품(Organic Cotton), 유기화장품, 천연 건강보조식품, 무독성 화장품 등을 유치하여 유기농에 파

를 미련하여 지회별 유기농산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하여 주기 바란다.

지난해 두차례의 전람회시에 출품했던 업체들의 한결같은 호응이, 개막 첫날부터 참

### 『뽕사랑 생명사랑』 수상



지난 30일 (주)농협유통 양재하나로마트 대강당에서 뽕사랑 생명사랑 시상식이 있었다.

이 상은 흙살리기참여연대(대표 권오중 정진석)가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상으로 3회째이며, 올해의 수상자로는 본협회 운영팀 부회장(좌에서 4번째)과 딸린트 고두심씨가 선정됐다.

본협회가 주최하고 (주)월드전람이 실무일절을 주관하여 7월15일(금)~18일(월)의 4일간 강남 코엑스 대서양 홀에서 국제 유기농세미나·쇼핑몰·한마당장터·시식행사 등 다양한 홍보는 FM라디오 570회·TV 35회·신문 5단 5회 실시중 출품을 위한 구체사항 질의는 본협회 사무국으로 문의요망

른 노하우와 다양한 건강정보들을 망라하여 우리나라의 유기농산업이 명실공히 국제화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전람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박람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관함은 물론 각 시·군이나 시·도청의 지원아래 홍보부스

객이 홍수를 이루어 홍보효과면에서 지금까지 어떤 전람회보다 가장 만족스러웠다

는 감사의 인사를 해올 정도로 『뽕』을 추구하는 도시 소비자들이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니만큼 생산업농조합법인은 물론 유통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이나 지회에서는 필히 출품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슈기농 시론

## 『친환경농산물 30% 애용운동』을 전개하자!

=학교급식 활성화를 필두로 거국적 운동 펼쳐야=



정진영 회장

#### ◆자연생태계 파괴에 이은 인류멸종의 조짐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며 전세계의 208개 국가들이 한마음이 되어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을 적극 지원하는 소이언은, 지난 20세기의 1백년간 우리 인류가 너무도 무질제하게 영농화학물질 오·남용한 결과 자연생태계 파괴에 이은 인류의 건강악화는 물론 후손들의 안녕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생태계 파괴 현상중 하나는 필자가 지난 1년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농민수감생들에게 확인한 바인데, 제비집이 한채라

제비 등 "자연생태계 파괴" 곧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져 정자부족으로 인한 불임에 유산·미숙아·기형아 폭증 화학약품 아닌 친환경유기농산물만이 유일한 치료약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유기농산물 공급" 최선방안

도 있는 농가가 전국적으로 7%선에 그치고 있는바, 지역에 따라서는 2% 밖에 안된 곳도 많아 향후 2~3년내엔 제비가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농업외적인 요소들까지 포함한 환경호르몬의 간섭으로인한 우리국민들의 건강피해는 더욱 심각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26%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평균 22.1세되는 현역군인들의 44%가 정자부족과 운동성약화로 불임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사태에까지 물러가 되어 버렸다.

지난 2월 26일에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세대의대 한상원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남성의 정자수와 비노기질환 관계연구"결과에 의하면, 새까만 현역사병중 정자수가 1ml의 정액에 2천만마리 이하이며 활동성이 50%이하로 세계보건기구(WHO)기준에 미달된 허우대 발정환 젊은이가 44%나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뜻아니한 결과에 놀란 식약청은 "세계적으로 불임부부가 늘어난다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큰 우려를 표하였다.

▶ 3면으로 이어짐

▶ 한국유기농자재센터 ☎ 02-449-0677 우리나라 유일의 유기재배전용 생리활성비료

### ★유기재배 전용

# 금수강산골드

#### 제품의 특징

#### ① 국내유일 유기재배 전용 생리활성비료

농촌진흥청고시 제2004-18호 "유기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에 맞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혼합유기질비료이다.

#### 유기재배 및 전환기유기재배의 병예방작용 필수비료

썩거,유박에서 분해되는 초산과 겨자유성분은 토양기생성 병균의 발생억제와 녹병, 도열병 등 공기전염성 병균의 발생을 억제한다.

#### ③ 지력을 높이는 생리활성물질 비료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질소는 물론 품질을 높이는 인산, 가리도 유효성분량대로 공급될 수 있는 복합성분이며, 특히 비타민, 아미노산, 칼슘, 미그네슘 성분이 고르게 배합된 화학비료 대체용 생리활성비료이다.

#### ④ 양분분해 특성과 양분흡수 특성의 일치

본 비료의 양분분해 특성은 작물의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별로 양분의 흡수특성에 일치되는 맞춤형 비료가 되어 고품질재배의 기본이 된다.

#### ⑤ 입상제품비료

입상으로 제조되어 시비가 편리하고 토양유실이 적은 완효성 생리활성비료로서 기비 및 추비로 사용한다.

수분함량 3% 이하의 정직한 혼합유기질비료



#### ■ 각 지역별 대리점 안내 ■

- 경주: 대문유기농산 054-775-7687
- 김천: 물레방아친환경 017-520-6002
- 안동: 우전농약사 054-852-4876
- 남해: 남해바이오 011-834-5618
- 하동: 우리농약사 011-9677-3116
- 진주: 남해화학 011-551-5447
- 밀양: 상업농자재 011-878-6132
- 김제: 유기농산 063-546-3550

- 담양: 풍년농약사 061-382-1909
- 무안: 해제신협 061-452-6004
- 정읍: 정읍유기농산 017-275-1270
- 나주: 친환경자재정보센터 018-614-3931
- 가평: 가평농약사 011-363-2383
- 논산: 부림유기농산 041-733-6244
- 영동: 그린상사 010-5656-1621